

임진왜란 초 官軍의 재편과 성격에 대한 재인식

김진수*

【국문초록】

광복 이후 1990년대까지의 임진왜란 연구는 의병에 관한 성과가 풍부하지만, 전쟁 극복의 주요한 주체 중의 하나인 관군에 대한 연구가 부진했다. 이는 전쟁 당시 관군의 허약성과 조선 정부의 무능력한 전쟁 대응 능력을 보여주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 임진왜란에 대한 기존 인식의 재검토를 제기한 성과를 시작으로 관군의 전쟁 대응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쟁 발발 직후 관군은 정상적인 동원 체제를 작동하여 일본군의 침공에 대응했지만, 예상치 못한 대규모 일본군의 압도적인 공세로 초기 전투에서 연이어 패배하였다. 결국 관군 지휘부가 붕괴되고, 국왕 선조가 도성을 떠나 개성-평양-의주로 피난하였다. 이로 인해 조선은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까지 몰리게 되었다. 한성 점령 이후 관군의 대응 양상을 거시적으로 살펴보면, 표면적으로 관군은 거의 붕괴되고 의병이 전쟁을 주도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 실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선 조정은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북방 지역 관군의 가세를 통한 군사력 보강과 남부지역 근왕군의 출진 등 여러 조치들을 단행했고, 실제로 공세 행동에 들어가기도 했다. 반면, 일본군은 한성을 점령하였음에도 이전보다 진격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했으며, 조선 수군의 활동과 명군의 참전으로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다. 한편, 각 道의 관군도 신속한 재편이 이루어졌다. 이후 관군은 조직적인 반격을 감행함으로써, 주요 지역을 수복함과 동시에 일본군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 양상을 나타냈다. 또한 관군은 화포를

* 서강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비롯한 화약무기를 적극적으로 운용하면서,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을 점차 압도하기 시작했다. 개전 이후 2~3개월이 지난 후에는 관군이 일본군에 대해 우위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임진왜란 당시 육상에서의 조선 관군의 대응이 거의 무기력하였으며, 결국 의병이 이를 대신하여 전투를 주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간의 인식과는 다른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관군의 전투력과 일본군에 대한 자신감이 급속히 회복되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조선 왕조가 유지해온 강력한 행정력과 자기 방어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상과 같이 관군의 전쟁수행에 대해서는, 임진왜란 전쟁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임진왜란, 선조(宣祖), 도요토미 히데요시, 관군, 의병, 산졸(散卒), 화약무기, 전쟁사

◆ 차례

1. 머리말
2. 임진왜란 개전 직후 관군의 대응에 대한 재인식
3. 한성 함락 이후 관군의 재편에서 나타난 전쟁의 양상 변화
4. 의병의 성격과 관군과의 관계
5. 맺음말

1. 머리말

임진왜란은 16세기 말 일본군의 조선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으로 발발하였으며, 조·명·일 동북아 삼국이 참전한 대규모 국제 전쟁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중요성으로 인해 한국의 군사사 연구에서 임진왜란 연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¹⁾

1) 현재까지 임진왜란에 대한 성과를 전반적으로 정리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1945년 광복 이후의 임진왜란 연구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분야는 의병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²⁾ 이는 임진왜란 초 관군이 육상전에서 제대로 된 전투를 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패배를 거듭한 반면, 전쟁의 전세를 역전하는 데는 의병의 역할이 주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병의 역할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전쟁 당시 조선 관군의 허약성과 조선 정부의 무능력한 전쟁 대응 능력을 보여주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관군의 기여가 눈에 띄기 시작한 시점을 선조 25년(1592)의 개전 초기보다 이듬해인 선조 26년 이후로 보는 인식이 대부분이었다.³⁾ 따라서 광복 이후 1990년대까지의 임진왜란 연구에서 의병에 관한 성과는 상당히 축적된 반면에, 전쟁 극복의 주요한 주체 중 하나인 관군에 대한 연구⁴⁾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이장희, 「왜란과 호란」, 『한국역사입문 - 제2판』, 지식산업사, 1987 ; 하우봉, 「사대교린관계와 양란」, 『한국역사입문』 2, 한국역사연구회, 1995 ; 오종록, 「임진왜란~병자호란기 군사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軍史』 38, 1999 ; 조원래, 「임진왜란사 연구의 추이와 과제」,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창작과 비평사, 2000 ; 박재광, 「임진왜란 연구의 현황과 과제」,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 김경록, 「임진왜란 연구의 회고와 제언」, 『軍史』 100, 2016.

- 2) 임진왜란 의병에 대한 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들이 참고된다. 조원래, 「壬辰倭亂史 研究의 推移와 課題」,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창작과 비평사, 2000 ; 김강식, 「임진시 의병전쟁」,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 계승범, 「임진의병의 연구 동향과 군사사적 의의」, 『임진의병의 역사적 의의와 현재적 가치』,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2009 ; 노영구, 「임진왜란 의병에 대한 이해의 과정과 새로운 이해의 방향」, 『한일군사문화연구』 13, 2012 ; 정해은, 「임진왜란 의병 연구의 성과와 전망」, 『임진란 연구총서』 1,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 2013 ; 하태규, 「임란 호남의병에 대한 연구현황과 과제」, 『歷史學研究』 59, 2015.

3) 오종록, 앞의 논문, 1999, 353쪽.

- 4) 임진왜란 시기 관군의 활동을 다룬 2000년대 이전의 연구들은 아래와 같다. 장학근, 「임진왜란기 관군의 활약」, 『韓國史論』 22, 1992 ; 송정현, 「임진왜란론 : 관군과 의병의 역할 문제」, 『전남사학』 8, 1994 ; 이장희, 「왜군의 격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 임진왜란에 대한 기존 인식의 재검토가 이루어진 것을 시작으로,⁵⁾ 전쟁 초기 관군의 전쟁 대응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먼저, 개전 직후 조선 관군의 동원체제가 일정하게 작동되어 일본군의 침공에 대응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한성 함락 이후 수개월 만에 관군은 신속한 재편과 전면적인 반격을 통해 일본군에 대해 점차 우위를 나타냈다는 연구가 나왔다. 이러한 성과는 전쟁 초기 관군의 역할에 대한 그간의 부정적 인식이 바뀌고, 관군의 전쟁 기여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조선 왕조의 행정력이 유지되고 있었으며, 또 일본군에 대한 조선 관군의 전투의지가 강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의병의 구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서, 의병의 주력이 향촌민이 아니라 낙오된 관군인 이른바 ‘散卒’이었다는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는 의병의 성격을 단순하게 충의에 바탕을 둔 의용군으로 보거나 鄉軍으로 이해한 기존 인식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종 일기 등 새로운 사료의 발굴과 검토를 통해 전쟁 기간 동안 각 고을 지방관들이 그간의 인식과 달리 자신의 임지를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인 방어 활동과 지역 안정을 위해 노력했음을 규명한 성과도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는 전쟁 중에도 각 군현별 행정은 물론, 방어 체계도 여전히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의병이나 수군이 임진왜란 극복의 주요한 주체였다는 기존 인식은 최근까지도 강하게 남아있다. 그 이유는 개전 초기 국면에서 조선 조정과 관군의 전쟁대응이 총체적으로

퇴의 전략·전술], 『한국사29-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국사편찬위원회, 1995 ; 심승구, 「임진왜란기 군사지휘권의 추이와 성격」, 『임진왜란과 권율장군』, 전쟁기념관, 1999 ; 박재광, 「임란 초기 전투에서 관군의 활동과 권율」, 『임진왜란과 권율장군』, 전쟁기념관, 1999.

5) 노영구, 「임진왜란 초기 양상에 대한 기존 인식의 재검토」, 『한국문화』 31, 2003.

실패했다는 시각이 여전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⁶⁾ 또한 조선 관군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연구의 지역적 편중성으로 인해 그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기회가 충분하지 못한 것도 또 하나의 이유로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동안 임진왜란 개전 초기 조선 관군의 전쟁 대응을 검토해온 학계의 연구성과를 정리하면서 관련 사료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임진왜란의 주역인 관군의 활동과 위상에 대해 한 걸음 더 접근해보고자 한다. 시기는 전쟁이 발발한 1592년 4월 13일 이후부터 이여송의 명군이 참전했던 1593년 이전까지로 살펴본다. 우선, 임진왜란 발발 직후의 전황을 확인하고, 한성 함락 이후 관군의 재편 과정과 반격 양상을 분석할 것이다. 다음으로 의병 부대의 실제 구성원에 대해 알아보면서, 여전히 대립적 관계로 인식되고 있는 관군과 의병의 관계를 파악하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의병들이 초전에서 일본군과 대항하여 전개한 전투는 관군의 재편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역할을 했다는 관점에서 이들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서 임진왜란 시기 관군의 위상과 역할을 재검토하고, 나아가 임진왜란에 대해 조금이나마 진전된 인식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 임진왜란 개전 직후 관군의 대응에 대한 재인식

1592년(선조 25) 4월 13일 부산진에 상륙한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지휘하의 일본군 1번대는 다음날인 14일에 부산진성을 공격하면서, 임진왜란이 발발하였다. 부산진성을 함락시킨 일본군은 연이어 다대포성을, 15일에는 동래부성을 공략하였다. 부산진성 전투 직전인 4월 13

6) 김성우, 「임진왜란 시기 관군은 왜 약했는가?」, 『역사와현실』 27, 2013a.

일 16시 경상우수영 예하의 가덕도의 응봉 烽燧와 烟臺에서 90여 척의 배가 부산포로 향하는 상황을 알렸다. 일본군의 이동상황은 候望에 의해 각 지휘계통으로 보고되었다.⁷⁾ 진주 근처에 머무르고 있었던 김수는 4월 14일에 일본군의 침공 소식을 접하고 곧바로 경상좌우도 지역에 대해 최초의 동원 명령을 내렸다.⁸⁾ 이에 따라 경상도 전역은 진관별로 제승방략에 의해 동원 체제가 작동되었다.⁹⁾ 일본군의 전면적인 침공을 맞은 경상좌병영¹⁰⁾에서는, 좌병사 李珥이 동래성의 북쪽인 蘇山驛 일대에 진을 쳤다. 양산군수 조영규와 울산군수 이연성도 이미 동래성에 집결하였으며,¹¹⁾ 밀양부사 박진과 경주판관 박의장도 군사들을 이끌고

7) 이호준, 「임진왜란 초기 경상도 지역 전투와 군사체제」, 『軍史』 77, 2010, 123~124쪽 ; 노영구, 「조선-일본전쟁(임진왜란·정유재란)과 군사제도의 변화」, 『한국군사사 7』, 경인문화사, 2012, 34쪽.

8) 이탁영, 『征蠻錄』 乾, 임진년 4월 15~16일.

9) 당시 조선군의 방어 체제는 대규모 외침시 制勝方略 체제에 의해 각 도별로 예하 고을의 군사들이 사전에 계획된 지역에 집결하여 해당 도의 監司와 兵使의 지휘를 받고, 나머지 일부는 중앙에서 파견된 京將인 助防將, 防禦使 등의 지휘하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상황이 급박한 지역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감사나 병사의 지휘하에 신속히 대응하고, 나머지 군사력은 경장의 지휘하에 일제히 반격을 감행하는 이원적인 방어 체제였다(이태진, 1968, 「16世紀末 國防態勢」, 『韓國軍制史－近世朝鮮前期篇－』, 육군본부, 381쪽 ; 노영구, 앞의 논문, 2003, 174쪽에서 재인용).

10) 당시 경상좌병영의 진관 편성은 아래의 표를 살펴볼 것.

구분	침절제사	동침절제사	절제도위
경주 진관	경주부윤	울산군수, 양산군수, 영천군수, 홍해군수	경주판관, 청하현감, 영일현감, 장기현감, 기장현감, 동래현감, 연양현감
안동 진관	안동 대도호부사	영해부사, 청송부사, 예천군수, 영천군수, 풍기군수	안동판관, 의성현령, 봉화현감, 진보현감, 군위현감, 비안현감, 예안현감, 영덕현령, 용궁현감
대구 진관	대구부사	밀양부사, 청도군수	경산현령, 하양현감, 인동현감, 현풍현감, 의흥현감, 신녕현감, 영산현감, 창녕현감

11) 분군법에 의해 영산현감 강효윤이 이끄는 군사들은 양산으로 이동하여 주둔하였다.

동래성으로 이동하고 있었다.¹²⁾ 대구진관에서는 4월 14일에 군사들이 동원되었고, 이튿날에 출진하였다.¹³⁾ 아울러 留鎮將을 두어 대구부를 守城하도록 하는 등 만전을 기하였다.¹⁴⁾ 부산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경상도 북쪽의 안동진관에서도 군사가 신속히 동원되었다. 4월 17일에 선발대가 영천을 지나 울산에 위치한 경상좌병영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고, 이튿날에는 본대가 후속하였다.¹⁵⁾ 그리하여 4월 21일에는 동래성을 제외한 13군현의 군사가 울산에 위치한 경상좌병영에 집결했다.

한편, 유키나가의 일본군 1번대는 우세한 군사력으로 동래성을 함락시켰으며, 소산역에 배치된 이각과 박진의 조선군을 퇴각시켰다. 이후 일본군은 4월 16일에 좌수영에 진입한데 이어, 기장과 양산을 차례로 함락시키고 밀양으로 진격하였다. 밀양부사 박진의 군사 3백 명은 밀양부근의 鵲院에서 일본군을 맞아 치열한 접전을 벌였지만, 군사력의 열세와 적의 우회공격으로 패배했다. 결국 일본군 1번대는 18일에 밀양을 점령한 후, 청도를 지나 대구를 향해 북상하였다.¹⁶⁾ 뒤이어 18일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 지휘하의 일본군 2번대가 부산포에 상륙하여 양산-언양을 거쳐 울산의 좌병영을 향해 계속해서 진격했다. 이때 13군현의 군사들이 좌병영에 집결하였음에도, 좌병사 이각의 이탈로 좌병영은 결국 일본군에 의해 함락되었다.¹⁷⁾ 이로써 경상좌도의 방어 체계는 완전히 와해되었다. 비록 主將의 무능으로 일본군을 효과적으로 저지하지

12) 노영구, 앞의 논문, 2003, 175쪽.

13) 徐思遠, 『樂齋先生日記』 1, 임진년 4월 15일.

14) 정해은, 「임진왜란기 대구 수령의 전쟁 대응과 사족의 전쟁체험」, 『역사와 경계』 98, 2016, 10쪽.

15) 이들은 石戰軍이라 불리는 투석 전문의 정예부대로서 을묘왜변에 활약하여 전공을 세웠다(노영구, 앞의 논문, 2003, 174쪽).

16) 비록 이 전투는 박진과 예하 군사들이 치열한 전투 끝에 패배했지만, 작원의 좁은 잔교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적이 여러 날 진격할 수 없도록 지연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宣祖修正實錄』 권26, 宣祖 25년 5월 1일 庚申).

17) 조정남, 『亂中雜錄』, 임진년 4월 21일.

못했지만, 경상좌병영 소속 군사의 초기 대응 태세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매우 신속한 것이었다.¹⁸⁾

경상우병영¹⁹⁾에서도 제승방략에 의거하여 신속하게 군사 체제가 작동되었다. 통신 체계에 따라 경상우도 전역에 4월 14~15일간 개전 소식이 알려졌고, 각 고을은 제진별로 동원을 실시하였다. 경상우병사 조대곤은 우병영의 군사력을 동원했다. 전쟁 직전 김성일이 신임 경상우병사로 임명되었지만, 아직 임지에 도착하지 않아 일단 조대곤의 지휘 아래 수행되었다. 경상우도 소속인 선산의 관군들은 4월 16일 事目에 의해 소집되었다. 이어 부산으로의 출동을 준비 중인 경상우병사의 명에 의해 18일 오전에는 부사 정경달의 지휘하에 병영이 있는 창원에 도착했다. 그리고 곧 부산으로 출동하여 낙동강을 건너 창녕에 도착하였다.²⁰⁾ 또한 진주관관 김시민과 함안군수 유송인의 관군들도 밀양 부사 박진을 지원하기 위해 작원으로 출동하였다. 상주진관의 경우, 상주 중심의 군사들이 京將의 지휘를 받기 위해 대구 지역으로 이동했고, 성주 중심의 군사들은 경상우병영으로 집결하기 위해 출동했다. 4월 20일에는 경상우병사 김성일이 병영에 도착하여 군사의 정비에 착수했으나 곧바로 조정의 체포 명령에 의해 병영을 떠남에 따라 경상우병영 군사들은 흩어져 버렸다. 이렇게 경상우도 군사들의 동원 체제도 적절히 작

18) 노영구, 앞의 논문, 2003, 175쪽.

19) 경상우병영의 진관 편성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첨절제사	동첨절제사	절제도위
상주진관	상주목사	성주목사, 선산부사, 금산군수	상주관관, 성주관관, 개녕현감, 지례현감, 고령현감, 문경현감, 함창현감
진주진관	진주목사	합천군수, 초계군수, 함양군수, 곤양군수	진주관관, 거창현감, 사천현감, 남해현감, 삼가현령, 의령현감, 하동현감, 산음현감, 안음현감, 단성현감
김해진관	김해부사	창원부사, 함안군수	거제현령, 칠원현감, 진해현감, 고성현령, 웅천현감

20) 『盤谷集』 권5, 「亂中日記」, 만력 20년 4월 16~18일.

동하고 있었다.²¹⁾

4월 18일에 구로다 나가마사(黑田長政)의 일본군 3번대와 4번대가 차례로 김해에 상륙하면서, 경상우병영 군사들과의 전투가 개시되었다. 김해부사 서예원은 일본군을 맞아 효과적인 守城戰을 벌였는데, 일본군은 조선군의 弓矢에 의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김해성 전투는 개전 초기 조선군이 단시간에 패배하지 않았던 최초의 전투였다.²²⁾ 그럼에도 일본군은 우세한 군사력으로 4차례에 걸친 공성전을 감행한 끝에 김해성을 함락시켰다.²³⁾

전쟁 발발 직후의 전라도는 일본군의 직접적인 공격에서 벗어나 있었다. 일본군이 부산포에 상륙할 때부터 경상도의 전황은 전라도 순찰사, 병사, 수사 등에게 전파되었다. 전쟁 소식에 일시적으로 민심의 동요는 있었지만, 전라도 지방관들의 이탈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고, 관군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지방관들은 전쟁 소식을 접하고 민심의 안정을 꾀하면서 일본군의 침공에 대비하고 있었다.²⁴⁾ 4월 16일 전라도관찰사 李洸은 경상도순찰사 김수로부터 전라도 관군을 경상도로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광은 장계를 올려 전황 보고와 함께 전라도의 관군을 이끌고 타도로 이동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선전관을 통해 전라도 순찰사에게 관군을 징발하고 경상도에 투입시킬지 여부를 직접 판단하라는 교지를 내렸다.²⁵⁾ 조정의 승인으로, 전라도 관군은 소백산맥을 넘어 경상우도 金山 일대에서 활동하다가 도내로 복귀하였다. 전라방어사 郭嶸은 4월 27일 전라우조방장 李之詩를

21) 노영구, 앞의 책, 2012, 37쪽.

22) 이호준, 앞의 논문, 2010, 138~141쪽.

23) 『宣祖實錄』 권26, 25년 5월 10일 戊辰.

24) 하태규, 「임진왜란 초기 전라도 관군의 동향과 호남방어」, 『한일관계사연구』 26, 2007, 150쪽.

25) 이호준, 「임진왜란 초기 하삼도 근왕군 활동 연구」, 『학예지』 19, 2012, 79~80쪽.

비롯한 5천여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雲峯과 咸陽을 거쳐 29일에는 추풍령 일대의 금산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경상우방어사 趙徹의 군사와 합류하여 금산 일대를 차단하면서, 일본군 3번대와 전투를 벌였다. 이후 이광이 제1차 전라도 근왕군을 조직하여 북상하자 전라방어군은 전라도 지역 방어를 위해 복귀하였다.²⁶⁾

이상에서 살펴보듯이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은 전쟁이 발발한 다음날까지 봉수를 비롯한 연락 체계가 유지되었고, 좌·우병영과 감영 등 세 곳에 각 고을의 관군이 신속한 동원 체제를 통해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국왕 선조에게 경상좌수사 박홍으로부터 전쟁 발발 보고가 올라온 것은 전쟁이 일어난 지 3일이 지난 17일 새벽이었지만,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조선군의 동원 양상은 그동안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²⁷⁾ 또한 초기 전투에서 각 지역의 장수나 지방관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한 일본군을 맞아 勇戰奮鬪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군사 동원 등 조선의 전쟁 대응 체제가 매우 허약하였고, 부산진성·동래성 전투 이후 장수 및 지방관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도망쳤다는 기존의 인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전 초기에 관군이 제승방략을 고수하면서 연달아 패배하였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제승방략이 을묘왜변(1555년)이나 정해왜변(1587년) 등 왜구의 내습과 같은 국지전을 예상한 전술이었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16만 정규군의 침공과 같은 대규모 전면전에 대비하여 수립된 전술이 아니었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²⁸⁾ 개전 초기 조선군은 우세한 군사력을 동원한 일본 정규군의 침공을 감당하

26) 이호준, 위의 논문, 2012, 81쪽.

27) 다만 국왕에 대한 보고가 다소 지연된 이유로, 당시 통신 및 보고 체계의 미비가 아니라 전쟁을 왜구의 확대된 침입 정도로 인식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는 관점이 있다(노영구, 앞의 책, 2012, 37~38쪽).

28) 민덕기, 「임진전쟁 초기의 전개상황과 그 배경」, 『전북사학』 39, 2011, 124쪽.

기에 역부족이었다.

3. 한성 함락 이후 관군의 재편에서 나타난 전쟁의 양상 변화

1) 한성 함락 직후 朝廷의 공세 시도와 전황의 변화

부산진과 동래성을 함락한 유키나가의 1번대는 좌수영-기장-양산-밀양-대구-인동-상주-조령-충주 방향으로, 기요마사의 2번대가 양산-연양-경주-영천-안동 방향으로 각각 진격하였다. 4월 18일에는 일본군 3번대와 4번대가 김해에 상륙했고, 5월에 들어서도 후속 부대들이 차례로 상륙했다. 한편, 일본군의 침공을 보고받은 조정에서는 곧바로 이일을 순변사로 삼아 중로에, 좌방어사 성응길을 경상좌도에, 우방어사 조경을 서로에 내려 보내고, 조방장 유극량과 변기로 하여금 죽령과 조령을 지키도록 하였다.²⁹⁾ 이어 4월 20일에는 좌의정 류성룡과 병조판서 김응남을 각각 도체찰사와 부체찰사로 삼고, 한성판윤 신립을 삼도 도순변사로 임명하여 이일을 후속하여 중로로 내려가 전체 조선군을 총지휘하여 일본군을 저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일과 신립이 상주와 충주에서 연달아 패배함으로써, 조선군의 전체적인 방어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다.³⁰⁾ 이로 인해 결국 4월 30일

29) 『宣祖修正實錄』 권26, 25년 4월 1일 癸卯.

30) 임진왜란 당시 제승방략에 의한 조선의 방어 계획은 방어선은 크게 4개로 편성되었다는 견해가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차 방어선은 적의 침공 지점에 가까운 전방 거점 지역(부산, 동래-김해), 2차 방어선은 주요 군사 거점인 병영과 수영(울산-창원), 3차 방어선은 도 단위 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거점(대구), 4차 방어선은 한성을 방어할 전략적 요충지(충주~조령)였다. 1·2차 방어선은 지역의 邊將이나 지방관, 그리고 병사나 수사의 지휘하에

국왕 선조가 도성을 떠나 북으로 몽진하였다. 피난 중에도 선조는 왕자들을 파견해 근왕병을 모집하도록 명했으며, 이 중 임해군과 순화군을 각각 함경도와 강원도로 보냈다. 이러한 선조의 조치는 군사력 확보 외에, 국왕인 자신과 왕실이 전쟁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의도를 표명한 것이었다.³¹⁾ 즉 왕실이 국난 극복을 위해 항전 활동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당위성의 천명이었다.³²⁾

이후 5월초 한성을 점령한 일본군 무장들은 5월 8~9일 경 한성에 집결하여 軍議에 따라 8도를 분담 및 장악하면서, 이를 통해 군량미를 비롯한 군수물자를 확보하여 차후 작전을 준비할 것을 결정했다.³³⁾ 결정에 따라 모리 데루모토(毛利輝元)는 경상도를, 고바야카와 다카카게(小早川隆景)는 전라도를 담당하도록 했다. 충청도는 시코쿠(四國)의 다이묘인 후쿠시마 마사노리(福島正則) 등이, 경기도는 우키타 히데이에(宇喜多秀家), 강원도는 모리 요시나리(森吉成), 황해도는 구로다 나가마사, 함경도는 가토 기요마사, 평안도는 고니시 유키나가 등이 각각 담당하였다.³⁴⁾ 그러나 이후에 일본군은 한동안 한성에서 출진하지 않았다.

관군들이 동원되도록 편성되었다. 3·4차 방어선에서는 경장인 순변사와 도순변사가 후방 지역의 관군들을 지휘하도록 계획되었다. 중앙의 또 다른 장수들인 방어사, 조방장은 도순변사, 순변사의 군대를 측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다(김성우, 「임진왜란 초기 제승방략전법의 작동 방식과 상주 북천전투」, 『한국사연구』 163, 2013b, 222~223쪽).

31) 신명호, 「임진왜란 중 선조 직계가족의 피난과 항전」, 『군사』 81, 2011, 127~128쪽.

32) 신명호, 위의 논문, 2011, 116~128쪽.

33) 北島萬次, 『豊臣秀吉の朝鮮侵略』, 吉川弘文館, 1995, 48~49쪽.

34) 그런데 6월 3일에 새로이 하달된 히데요시의 명령은 조선 현지 무장들의 의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히데요시는 조선에 주둔중인 무장들에게 추가로 투입되는 증원부대와 함께 명나라로 진격할 것을 명령하였다. 아울러 일본군 지배하의 조선 영토에 대해서는 代官을 보내 통치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中野等, 『秀吉の軍令と大陸侵攻』, 吉川弘文館, 2006, 104~108쪽). 즉, 조선에 주둔하였던 일본군 무장들의 8도 분담 결의는 히데요시의

조선 북방에 배치된 함경도와 평안도의 관군들이 신속히 남하하면서 일본군과 접전을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우선 함경도 관군의 경우, 5월 2일에 함경남도 병사 申砮의 군사들이 국왕 선조를 호위하기 위해 개성에 도착하였다.³⁵⁾ 또한 함경 남병사 李渾의 군사도 漣川으로 와서 都檢察使 이양원과 합류하였다.³⁶⁾ 당시 이혼의 군사는 최소한 3천 5백 명 이상으로서 북방 지역의 관군 중 최정에 부대였다.³⁷⁾ 그는 5월 13일에 부원수 申恪과 합세하여 양주 해유령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싸워 승리를 거두기도 하였다.³⁸⁾ 그리고 평안도 관군의 경우, 임진강을 전선으로 하여 일본군과 대치하였다. 또 황해도에서 6천여 명의 군사를 징병하여 군사력을 추가로 보강하였다.³⁹⁾ 이렇게 북방 지역의 관군을 확보한 조선 조정은 하삼도 근왕군의 동원을 위해 전라감사 이광에게 북상하라는 명을 여러 차례 하달하였다.⁴⁰⁾ 추정하건대, 이러한 조정의 조치는 초기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공세 작전을 감행함으로써 전쟁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즉 조선의 공세 계획은 평안·함경도 등 북방 지역의 관군이 임진강에서의 국지전을 통해 일본군의 진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김경태, 「임진전쟁 초기 경상좌도 일본군의 동향과 영천성 전투」, 『군사』 95, 2015, 374~375쪽). 따라서 히데요시와 현지 무장들의 의사에 차이가 있었다. 이는 일본군 총지휘부와 현지 부대간의 괴리가 있었으며, 차후 일본군의 활동에 혼선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히데요시의 군령을 전달하기 위해 이시다 미쓰나리(石田三成), 마시타 나가모리(増田長盛), 오타니 요시즈구(大谷吉繼) 등 세 부교(奉行)가 증원 부대와 함께 조선에 건너왔다(北島萬次, 『朝鮮日々記·高麗日記』, そしえて, 1982, 94~95쪽; 中野等, 『石田三成伝』, 吉川弘文館, 2017, 162~167쪽).

35) 『宣祖實錄』 권26, 25년 5월 2일 辛酉.

36) 박동량, 『寄齋史草』 下, 임진일록 권1, 5월 19일.

37) 『宣祖實錄』 권26, 25년 5월 23일 壬午.

38) 『宣祖修正實錄』 권26, 25년 5월 1일 庚申; 『燃藜室記述』 宣祖朝古事本末, 壬辰倭亂 大駕西狩, 5월 13일.

39) 『宣祖實錄』 권26, 25년 5월 3일 壬戌.

40) 『宣祖實錄』 권26, 25년 5월 3일 壬戌; 5월 13일 壬申.

격을 차단하여 고착시키는 동안, 경상·전라·충청 하삼도의 관군은 한성 방향으로 신속히 북상시키고, 이후 이들 관군이 대대적인 공세로 한성 일대의 일본군 주력을 각기 남북에서 협격하여 궤멸시킨다. 이후 조선군은 승세를 몰아 남은 잔적들을 소탕한 후 한성을 수복한다는 것으로 짐작된다.

5월 17일에 임진강의 조선군은 처음으로 일본군을 선제공격했지만 패배하였다. 그런데 일본군은 전투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열흘 뒤에서야 임진강을 건너 5월 30일에 개성에 입성하였다.⁴¹⁾ 이곳에서 차후 진격로에 대한 상의 결과, 유키나가는 평안도로, 기요마사는 함경도로 결정되어 6월 1일에 출진하였다. 일본군은 6월 6일 용인에서 조선의 하삼도 근왕군을 격파하였다. 결국 남과 북에서 일본군 주력을 섬멸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던 조정의 의지는 좌절되었다. 이후 일본군은 6월 15일에 평양성을 점령하였고, 의주에 이른 국왕은 명으로의 망명을 추진하려고 했다. 이러한 상황은 조선이 극도의 위기국면에 몰리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평양성에 입성한 유키나가는 더 이상의 전진을 중지하였다. 이는 명나라까지 진격하라는 히데요시의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였다.⁴²⁾ 한성 점령 이후 일본군의 진격 속도는 부산진 전투 직후와 달리 점차 주춤해졌다. 이에 대해서는 유키나가가 조선과의 교섭 및 명과의 접촉을 추진하려는 것이나, 일본군이 조선 전역에 대한 점령정책에 착수하는 과정, 조선 수군의 해상작전에 의한 보급로 차단 등 여러 이유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북방 지역의 조선 관군의 지속적인 항전도 일본군의 진격 속도를 둔화시킨 또 하나의 이유로 제시할 수 있다. 평양성을 일본군에게 내주었음에도, 이들 관군은 평양 주변을 봉쇄하고

41) 北島萬次, 『朝鮮日々記・高麗日記』, そしえて, 1982, 95쪽.

42) 김경태, 『임진전쟁기 강화교섭 연구』,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51쪽.

있었다. 또한, 비록 패배했지만 8월 1일 단독으로 평양성 탈환 전투를 감행할 정도로⁴³⁾ 평양 일대에 대한 압박을 가하였다. 그만큼 북방 지역의 조선 관군은 일본군의 북상을 저지하는 데 있어 여전히 충분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⁴⁴⁾ 이로 인해 일본군의 기세도 다소 위축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조선의 남부 지역에서는 개전 2~3개월여 만에 의병의 활동과 함께 관군의 재편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나아가 재편된 관군이 주요 읍성을 수복하기 위해 반격을 감행하거나 일본군의 침공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전쟁의 양상이 변하기 시작했다. 이는 전쟁 초기 지휘 체계와 군사력이 와해되었음에도 각 군현별 장수와 지방관들이 여전히 자신의 本營을 굳게 지키면서 군사력을 보존하였기에 가능하였다. 경상도의 경우, 이탁영의 『정만록』 중 경상감사의 장계⁴⁵⁾에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⁴⁶⁾ 또한 경상도 지방관 67인의 행적을 살펴보면, 재직 33인(49.3%), 전사 3인(4.5%), 효시 2인(3%), 파직 1인

43) 『宣祖修正實錄』 권26, 25년 8월 1일 戊子.

44) 개전 직후 이원익은 평안도 도순찰사로 제주반야 안주를 중심으로 민심의 수습과 군병 모집 및 군수 확보에 전력을 기울였다(이양희, 「오리 이원익의 임진왜란기 군사활동」, 『한국인물사연구』 4, 2005, 62쪽). 과거 이원익은 1574년(선조 7) 황해도 道事로 재임하면서 군적 작성을 완벽히 수행했을 정도로 군정 업무에 뛰어난 자질을 보유하고 있었다. 북방 지역의 관군이 건재함을 유지한 데에는 그의 탁월한 업무능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45) 이탁영, 『征蠻錄』 坤, 임진년 7월 25일.

46) 임진왜란 개전 초기 경상도 내 각 고을 지방관의 대응 동향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은 연구가 있다.

임용한, 「임진왜란 시 정기룡 장군의 활약과 전쟁사적 의미」, 『상주문화연구』 21, 2011 ; 김진수, 「임진왜란 초기 경상좌도 조선군의 대응양상에 대한 검토」, 『軍史』 84, 2012 ; 김경숙, 「임진왜란 초기 지방관의 守土活動」, 『조선시대사학보』 65, 2013 ; 이선희, 「임진왜란기 경상좌도 지역 청도군수의 임용실태와 전쟁대응」, 『한국학논총』 49, 2018 ;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 『경북지역 임진란사』 1·2·3, 경상북도, 2018.

(1.5%), 포로 1인(1.5%) 등으로 총 40인(59.7%)이 전쟁 중에 직무를 수행하였고 도망한 지방관은 25인(37.3%)이었다.⁴⁷⁾ 도망가거나 피신한 지방관의 절반 정도는 다시 관아에 복귀하거나, 도망 중인 상태에서 공무나 군사 활동을 수행하였다.⁴⁸⁾ 여기에 조선 조정은 개전 초기 단절된 경상좌우도 간의 연락 체계를 복구하고 흐트러진 행정조직을 재편하기 위해 金誠一을 慶尙道招諭使로, 金功을 慶尙道安集使로 임명하였다. 이들은 각각 경상우도와 경상좌도로 부임하였고, 招募 활동을 통해 전직 관료나 사족 지휘하의 의병 부대를 재편성하면서 흐트러진 군정 체계를 바로잡고자 하였다.⁴⁹⁾ 이들은 수령이 도망간 곳이나 없는 곳에 假將을 임명하는 등 官 주도로 전열을 정비해 나갔다. 전라도의 경우, 용인 전투의 패배에도 전라도의 관군 지휘부는 여전히 건재했고 어느 정도 군사력을 보존하고 있었다. 전라감사 이광은 군사들을 징발·정비하여 관군을 수습함으로써 일본군의 호남 공격에 대비하였고, 전라병사 최원은 2만의 군사들을 동원하여 경기도로 북상하기도 했다.⁵⁰⁾

2) 각 도 관군의 재편 과정과 반격 양상

개전 초기 조선 관군은 일본군의 전면적인 침공으로 패배를 거듭하

47) 정해은, 「임진왜란 초기 경상도 수령의 동향과 의병지원 활동」, 『조선시대 사학보』 70, 2014, 147쪽.

48) 정해은, 위의 논문, 2014, 148~154쪽.

49) 노영구, 「임진왜란 초기 近始齋 金垓의 의병 활동」, 『군자리 그 문화사적 성격』, 토우, 2001, 186~188쪽 ; 허태규, 「金誠一 招諭 활동의 배경과 경상우도 義兵 봉기의 함의」, 『남명학연구』 41, 2014 ; 김학수, 「김성일(金誠一)의 임란 중 활동과 인적 네트워크」, 『남명학연구』 41, 2014 ; 정해은, 「임진왜란 초기 경상좌도 안집사 김륵의 역할과 활동」, 『영남학』 28, 2015, 369~374쪽.

50) 하태규, 「임진왜란 초 호남지방의 실정과 관군의 동원실태」, 『지방사와 지방문화』 16-2, 2013, 55~57쪽.

였다. 그러나 북부 지역에서는 평안도·함경도 관군이 분전하고 있었고, 남부 지역에서는 각 군현별 장수와 지방관들이 임지에서 관군을 수습하여 항전을 수행하였다.

전라도에서는 고바야카와 다카카게의 일본군 6번대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 각 지역의 장수와 지방관이 군사들을 모집하고 있었다. 광주목사 권율이 향병 1천 5백 명을 확보하였고, 전주부윤 권수 또한 부임 즉시 흩어진 군병들을 수습하여 수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일부 수령들도 용인전투 후 흩어졌던 군사들을 수습하였다.⁵¹⁾ 6월 하순 일본군이 錦山에 도착하고, 전주를 비롯한 전라도에 대한 공략 준비에 착수하였다. 이에 전라감사 이광은 권율을 도절제사로 삼아 남원에 배치하고, 각 고을에 동원된 군사를 웅치와 이치,⁵²⁾ 장수 일대에 집중 배치하여 방어전을 전개하였다. 또한 금산과 무주에 주둔한 일본군을 공격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4개월에 걸쳐 관군을 운용하며 전라도를 지켜냈다. 각 고을에서 동원된 전라도 관군은 전라감사 이하 병사·도절제사·방어사의 지휘 체계 내에서 조직적으로 운영되었다.⁵³⁾

경상우도에서는 5월 4일에 초유사 김성일이 함양에 도착하여 소모유사를 정하고, 수령들을 독려하여 초유사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관주도의 활동으로 모여진 의병 부대는 관아에 모여 관군에 이름을 올렸다. 함양의 경우 5월 중순까지 4백 명의 군사를 관에 소속시키면서 모집 활동을 하였다.⁵⁴⁾ 거창에서는 이미 9백 명의 군병을 확보했고, 함안

51) 하태규, 위의 논문, 2013, 56쪽.

52) 웅치·이치 전투와 관련한 관군의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할 것. 전라문화연구소, 『임진왜란 웅치전투와 전적지』, 선명, 2006 ; 김중수, 「임진왜란 초기 방어실태와 웅치·이치 전투」, 『전북사학』 51, 2017 ; 전북사학회, 『임진왜란 웅치전투와 이치전투』, 전북사학회·전라북도 완주군, 2017.

53) 하태규, 앞의 논문, 2013, 58~66쪽.

54) 이선희, 「임진왜란 시기 咸陽 수령의 전란대처-『孤臺日錄』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110, 2010, 106쪽.

에서는 李澍이 散卒 6백 명을 수습하여 군수에게 인계하였다. 선산에서는 부사의 노력으로 군사 1천여 명을 확보하기도 하였다.⁵⁵⁾

그러나 경상좌도의 경우, 지역 단위의 거점 방어로 그치고 있을 뿐 주요 읍성의 수복을 비롯한 전면적이고 조직적인 반격을 감행할 수 없었다. 이는 좌병사 이각의 이탈로 조선군의 지휘부가 와해되면서, 좌도 내의 군사기관이나 행정관서의 명령 체계가 확립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안집사 김륙의 군정 활동이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는 대구와 영천, 경주 등 좌도 내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발휘될 수 없었다. 따라서 6월에 이르기까지 일본군에 대한 항전태세는 갖추어지지 못했다.⁵⁶⁾ 그런데 5월경 경상도 근왕군으로 종군하고 있었던 밀양 부사 박진이 신임 경상좌병사로 임명되었다.⁵⁷⁾ 박진의 부임은 좌도의 관군 지휘체계를 복구하면서 와해된 군사력을 재편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6월 15일경 박진은 경상우도의 고령으로부터 낙동강을 건너 경상좌도로 넘어가면서, 각 군현의 수령들에게 공문을 하달하였다. 그 내용은 각 수령들이 군사들을 수습하여 伏兵을 운용하면서, 각 지역의 전황을 상세히 보고하라는 것이었다.⁵⁸⁾ 이러한 그의 조치는 개전 직후에 단절된 좌도 내의 각 군현에 대한 명령 체계를 복구하고자 한 것이다. 박진은 현풍·밀양·경산·신녕·청송·안덕 등을 거치면서 의병장 권응수를 휘하 조방장으로 삼고, 7월 5일경 진보에 도착하였다.⁵⁹⁾ 이후 그는 청송과 진보 등지에서 흩어진 관군을 수습함으로써

55) 노영구, 「임진왜란 초기 경상우도 의병의 성립과 활동 영역」, 『역사와현실』 64, 2007, 43쪽.

56) 서인한, 『壬辰倭亂史』,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7, 114쪽.

57) 『宣祖修正實錄』 권26, 25년 5월 1일 庚申 ; 이탁영, 『征蠻錄』 乾, 임진년 5월 25일 ; 신희, 『역주 난적회찬』, 역락, 30쪽.

58) 조경남, 『亂中雜錄』 1, 임진년 7월 5일.

59) 김진수, 「임진왜란기朴翥의 군사활동과 평가」, 『한국사학보』 60, 2015, 253~256쪽.

점차 그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는 좌병사로 임명된 직후, 최초 30여 명의 군사로 시작하여 밀양에서 5백여 명, 도내 곳곳에서 2천여 명의 군사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렇게 박진은 결집한 군사를 이끌고 안동부를 점령하고 있던 일본군을 축출하였다. 이후 그는 안집사 김륙의 권유로 안동부에 군영을 설치하였다.⁶⁰⁾

경상좌병사 박진이 안동 지역에 주둔하면서, 좌도의 관군은 본격적으로 경상좌도 내 지휘 체계를 확립하고 군사력을 재편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경상좌도 조선군의 전투 양상은 지역 단위의 방어에서 전면적이고 조직적인 반격으로 바뀌었다. 6월 중순 요동부총병 조승훈이 이끄는 명군의 참전 소식 이후 조정의 요격 명령이 내려졌다.⁶¹⁾ 경상좌순찰사 한효순으로부터 조정의 명을 받은 박진은 다시 권응수에게 군령을 하달했다.⁶²⁾ 이후 권응수는 좌도의 관군과 의병 부대를 지휘하여 영천성을 수복하였다. 이 영천성 수복 전투는 일본군에 점령당한 주요 읍성을 처음으로 탈환한 전투로서, 관군과 의병의 협동 작전이 빚어낸 성과였다. 이어 조선군은 2차례의 공성전 끝에 경상좌도의 거진이었던 경주성도 탈환하였다. 영천성과 경주성 탈환에 있어서는 경주판관 박의장의 활약이 결정적이었다. 그는 과거 일본군의 공세로 인한 경주성 함락 이후 죽장현에 주둔하면서, 흩어진 軍民들의 수습과 무기 제작 및 정예병 선발 등에 매진하였다. 이렇게 그는 확보한 관군을 이끌고 일본군을 상대로 주야로 유격전을 전개하면서 적의 후방을 교란시켰다. 나아가 그는 영천성과 경주성 등 주요 읍성의 탈환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⁶³⁾

60) 『栢巖集』 권5, 「條陣慶尙道軍情賊勢狀啓」, “左兵使朴晉 來此近邑 臣與之相見 勸令留鎮安東”

61) 『宣祖實錄』 권28, 25년 7월 19일 丙子.

62) 경상우도의 경우, 정경운의 『孤臺日錄』 7월 13일 기록에서 조정의 요격 명령이 경기도 순찰사를 통해 義兵都大將 金沔에게 하달되었다는 내용이 보인다(김진수, 앞의 논문, 2012, 20쪽).

63) 장준호, 「임진왜란시 朴毅長의 경상좌도 방위활동」, 『군사』 76, 2010, 73-74

경주성 탈환 이후 조선군은 언양과 울산으로 연결하는 길목과 울산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길을 차단하면서 일본군의 보급로 유지를 어렵게 하였다.⁶⁴⁾ 아울러 경상좌도 내의 군현은 물론, 경상우도 등 다른 지역과의 연락 체계가 연결되면서 일본군을 양면에서 협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점차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었다.⁶⁵⁾

반면, 일본군은 경상도내의 주요 요충지를 상실하였으며, 이로 인해 부산에서 한성까지의 육상 보급로 유지에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차후 작전에 상당한 차질을 빚었다. 더욱이 7월 초 한산 해전 등 조선 수군의 활동으로 인한 해상 보급로 차단과 17일에 요동부총병 조승훈이 이끄는 명군의 평양성 공격으로 일본군은 수세에 몰리기 시작하였다. 비록 명군이 패배하긴 하였지만, 이들의 참전은 일본군에게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조선에 주둔 중인 일본군은 물론, 히데요시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파견된 부교(奉行)들도 차후에 일어날 전쟁 양상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결국 이들은 평양성 전투 직후 8월 7~13일 사이에 후속대책회의를 소집하였다.⁶⁶⁾ 경상도에 주둔한 데루모토에게 평안도에 대한 원군을 보낼 것을 요청할 정도로 일본군은 평양을 전선으로 삼아 북방에 대한 방비를 강화하려고 했다.⁶⁷⁾ 이러한 북부에서의 일본군 동향은 상대적으로 조선 남부 지역에서의 군사력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를 기점으로 이듬해인 1593년 초에 조선 관군의 요격 활동이 재개되었다.

당시 경상좌도의 관군의 경우 군사력을 재편하는 것은 물론, 진천뢰포 등의 대구경 화포와 같은 화약무기를 상당수 확보함으로써 전투력

쪽.

64) 장준호, 위의 논문, 2010, 78쪽.

65) 김진수, 앞의 논문, 2015, 257쪽.

66) 김경태, 앞의 논문, 2015, 388쪽.

67) 김경태, 위의 논문, 2015, 388~389쪽.

이 한층 강화되었다. 그것은 청송과 진보 등 일본군의 점령이 미치지 못했던 고을 내 軍器庫에 화약무기가 어느 정도 보존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⁶⁸⁾ 이렇게 관군이 화약무기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운용하면서,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에 대해 점차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다. 그 사례를 살펴본다면, 박진의 관군이 풍산현 龜潭에 위치한 일본군들에 대해 진천뢰포를 쏘았다는 기록이나,⁶⁹⁾ 7월경 영천성 수복전투 시 권응수의 부대에게 화약무기를 제공한 점⁷⁰⁾, 2차 경주성 수복 전투시 비격진천뢰를 사용한 사례 등이 나타난다. 또한, 이듬해 1593년 초에 좌도의 관군이 안동 지역의 의병 부대에 진천뢰 등의 화약무기를 수차례에 걸쳐 지급하였다.⁷¹⁾ 이렇게 화약무기를 보유한 의병들은 여러 전투에서 진천뢰 등의 화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일본군에 대해 수차례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⁷²⁾ 이는 임진왜란 발발 초기에 조선 관군이 일

68) 임진왜란 초기 일본군의 점령 형태는 완전한 全面占領이 아니라, 중요 郡邑과 郡邑을 연결하는 침공로의 주변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른바 點線占領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 전라도의 경우에는 주요 營鎮 및 군읍을 비롯하여 사실상 일본군의 점령이 미치지 않은 후방의 각 지역내 軍器庫에는 어느 정도의 화약무기가 보존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 무기는 전쟁 초기 하삼도 지역의 의병 부대가 우선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군사력을 재편한 관군의 전투력 강화에 기여하였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許善道, 「제3장 韓國火器의 裝放法과 形態考」, 『朝鮮時代 火藥兵器史研究』, 일조각, 1994, 273쪽). 따라서 경상좌도의 관군도 이러한 사례와 마찬가지로 진천뢰포와 같은 대구경 화포를 보유했을 것으로 보인다(김진수, 앞의 논문, 2012, 19쪽). 이는 경상좌도의 경주부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찾아 볼 수 있다. 당시 이 지역에는 신광창·기계창·죽장창·안강창 등의 4倉이 있었다. 일본군의 경주성 점령 후 경주판관 박의장과 경주부윤 윤인함이 4개의 창고가 위치한 장소 중 죽장현과 기계현에 각각 주둔하면서 관군을 수습한 사실은 이를 방증한다(김진수, 앞의 논문, 2012, 10쪽).

69) 신희, 『역주 난적회찬』, 역락, 46~47쪽.

70) 『白雲齋實紀』 권2, 「永川復城記」.

71) 김진수, 앞의 논문, 2015, 262쪽.

72) 『鄉兵日記』에는 1월 1일에 진천뢰를 사용하여 일본군의 진영을 놀라게 하

본군의 조총을 경험한 이후, 전쟁에서의 화기의 중요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관군 사이에서 화기가 전투의 승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무기로 인식되었고, 조총뿐만 아니라 일본군의 기존 장기인 단병전도 화기로서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⁷³⁾

한성 점령 이후 관군의 대응 양상을 거시적으로 살펴보면, 표면적으로 관군은 거의 붕괴되고 의병이 전쟁을 주도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 실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적지 않은 관군 장수들이 해당 임지에서 守城에 임하고 있었다. 또한 전라감

였을 뿐만 아니라 죽은 적군들이 매우 많았음을 순찰사에게 서면으로 보고했으며, 2일 唐橋 전투에서 진천뢰로 승리하고 이를 더 보내주도록 요청했고, 2월 25일에는 역시 진천뢰를 구사하여 적의 진영이 혼란해지는 사이에 일본군 장수를 죽였다는 등 사례가 나타난다.

- 73) 명종~선조초의 계하문서를 엮은 『各司受教』를 살펴보면, 1559년(명종 14)의 병조 啓目에서 ‘別破陣忠贊衛’의 존재가 나타난다. 이 부대는 “대포를 전습한 충찬위”를 의미한다(한국역사연구회 중세2분과 법전연구반, 『각사수교』, 청년사, 2002, 102쪽). 계목 뒤에 첨부된 節目에서 별파진충찬위의 운영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보인다. 별파진충찬위는 총 200명을 5번으로 나누어 40명씩 軍器寺에서 교대로 근무했다. 이들은 번을 서면서 화포 운용법을 익히고 시험을 치르기도 했다. 또한 별파진충찬위가 화포 숙달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 조정에서는 군기시 관원과 아전들이 함부로 사역시키는 것을 엄금했다. 별파진충찬위 중 화포를 잘 다루는 인원들을 차정하여 지방의 鎭浦로 파견되었으며, 兵史나 水師를 동행하는 군관으로 선발했다. 지방으로 파견된 별파진충찬위는 지방 武庫의 인원들에게 화포 운용법을 교습했는데, 감사와 병사가 별파진충찬위의 수준을 평가하기도 했다(한국역사연구회 중세2분과 법전연구반, 위의 책, 103~104쪽). 이는 조선이 장기간의 대규모 전면전이 없었던 평시 상황에서도 별파진충찬위와 같은 화포 부대를 꾸준히 운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임진왜란 개전 초기 각 도의 관군이 화포의 적극적 운용으로 일본군에 대해 우위를 나타낸 데에는 평시 조정의 별파진충찬위 운용이 원동력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최근에 별파진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가 있어 참고된다(이재정, 「別破陣과 조선후기 大砲 운용」, 『한국사론』 64, 2018).

사 이광과 경상좌병사 박진 등의 지휘관들이 관군을 수습하고 재편하면서 전쟁의 양상을 전환시켰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임진왜란 당시 육상에서의 조선 관군의 대응이 거의 무기력하였으며, 결국 의병이 이를 대신하여 전투를 주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간의 인식과는 다른 것이다.

4. 의병의 성격과 관군과의 관계

임진왜란이 발발한 직후 일본군의 압도적인 공세와 거듭된 패배로 조선군의 지휘 체계와 군사력은 와해되고 말았다. 이를 대신하여 거병한 의병 부대는 일본군과 대항하여 전투를 전개함으로써 관군이 재편될 수 있는 시간을 벌여주었다. 전쟁 당시 의병들은 상호간 연대작전이나 관군과의 협동작전 등을 전개하기도 했다.⁷⁴⁾ 그런데 전국의 의병은 일반적으로 농민과 향촌민이 주축이 되어 구성되었다는 인식과는 대조적으로, 경상우도나 좌도의 의병장이 지휘하였던 의병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주로 낙오된 관군 출신자(散卒)들이었음이 분명하다.⁷⁵⁾ 당시 경상도 전역에는 다수의 낙오된 군병은 그들의 거주지인 각 군현 주변의 산간 계곡 사이에 흩어졌던 상황이었다.⁷⁶⁾ 왜냐하면 전쟁 발발 직후 일본군의 신속한 진격에 의해 각 지방관들을 지휘할 조선군 지휘부는 와해되었지만, 군졸들의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큰 피해가 없었기 때문이다.⁷⁷⁾

74) 송정현, 「壬辰倭亂論－官軍과 義兵의 역할문제－」, 『전남사학』 8, 1994.

75) 1990년대에 이수건은 화원현 의병장인 우배선 부대의 구성 형태를 분석하면서, 의병의 주력이 낙오된 관군 ‘산졸’이었다는 견해를 처음 제시하였다(이수건, 「월곡 우배선의 임진왜란 의병활동」, 『민족문화논총』 13, 1992, 75~78쪽).

76) 李魯, 『역주 용사일기』, 한일문화연구소, 57쪽 ; 趙靖, 『임진일기』, 임진년 4월 24일.

경상우도 의병의 경우, 최초로 거병한 광재우 부대가 전쟁 초기 각지에 흩어졌던 捕將, 散卒을 수용하여 전투 병력화한 사례⁷⁸⁾가 있으며, 김면과 정인홍의 부대 또한 그 구성원들이 관군 출신이었다.⁷⁹⁾ 경상좌도 의병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권응수 부대의 구성원은 한때 무사 출신이었는데,⁸⁰⁾ 이들이 흩어진 군졸들의 수습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또 영천을 비롯한 좌도 의병장이 해당 지역의 흩어진 군사들을 모았다는 여러 사료가 나타나는데, 이는 기존의 관군 출신인 산졸들이 의병 부대의 주된 구성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⁸¹⁾ 실제 전투의 경우에도 관군 출신들이 주된 역할을 하였음은 여러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일부 의병장들의 출신이 현직 군관 또는 관료였다는 점에서 이를 방증한다. 그 사례로 경상좌도 의병장 권응수는 개전 당시 경상좌수사 소속의 군관이었으며,⁸²⁾ 그 구성원도 무사들이었다. 함경도 의병장 정문부의 경우도 개전 당시 兵馬評事로서, 부대의 구성원 또한 僉使나 萬戶 등 무관직에 복무하는 사람들이 중심이었다. 즉 의병장을 비롯한 지휘부 요원들이 전직 군관보다는 현직에 종사한 인원들이 많이 참여하였던 것이다.⁸³⁾ 의병 부대 구성원에서 산졸이 많은 배경에는 의병장이나 의병 유사들 가운데 전직 관료가 많은 점도 한 몫을 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의병들은 군사 지휘능력을 갖춘 정문부와 권응수 등 현직

77) 노영구, 앞의 논문, 2007, 42쪽.

78) 이수건,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995, 466쪽.

79) 노영구, 앞의 논문, 2007, 44쪽.

80) 신홍, 『역주 난적회찬』, 역락, 150쪽. “有訓鍊奉事權應銖 舉兵討賊 其管下 應募者 皆一時武士 與永川居鄭大任 同事 捕斬頗多”

81) 노영구, 앞의 논문, 2003, 181~182쪽 ; 앞의 논문, 2007, 44쪽 ; 김진수, 앞의 논문, 2012, 12~14쪽.

82) 『白雲齋實紀』 권1, 「年譜」 만력 19년.

83) 이장희, 「정문부와 관북의병」, 『임진왜란사연구』, 아세아문화사, 1999, 129~134쪽 ; 류주희, 「임진왜란을 전후한 尹卓然의 활동 - 〈關北日記〉를 중심으로 -」, 『한국사상과문화』 28, 2005, 162쪽에서 재인용.

장수의 지휘하에 일본군을 상대로 상당한 전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의병 부대의 구성원이 산졸 출신이라는 근거는 의병의 전술 방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쟁 발발 이후부터 관군 재편 이전까지의 의병들은 요충지에 매복하여 일본군을 기습하는 유격전술을 실시하였다. 이는 전쟁 이전 조선군의 전술적 장기인 활을 이용한 전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의병의 대다수는 관군이었던가 낙오된 이른바 산졸로서, 기본적으로 활을 다루는 데 상당히 숙달되어 있었다. 활의 숙달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지만, 관군 출신이 다수를 점하였던 의병들은 곧바로 활을 이용한 매복전술 등을 수행할 수 있었다. 특히 일본의 장기인 조총은 화승에 불을 붙여야 하는 등 평지에서 여유가 있을 때에만 위력을 발휘하는 것에 비해, 활은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여 전투에서 융통성이 컸다. 이에 따라 의병들은 지세가 험한 곳에 매복하고 기습적으로 사격하여 일본군을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었다.⁸⁴⁾ 일본군측도 조선 의병의 弓矢 공격에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일본군의 기록에서, 산으로 도망친 조선인이 갑자기 ‘半弓’으로 공격했다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⁸⁵⁾ 이는 의병의 궁시 공격에 일본군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차후 전투에 상당히 고전한 것으로 파악된다.⁸⁶⁾ 이러한 의병의 전투는 임진왜란 초기에 겪었던 관군의 참패를 만회시키는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군이 군사력 재편과 반격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의병의 활동은 전쟁 양상의 변화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임진왜란 시기 관군과 의병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립

84) 노영구, 앞의 책, 2012, 52~53쪽.

85) 『高麗日記』 1592년 5월 10일·10월 중순·1593년 2월 22일의 기록, 5월26일 데루모토의 서장(卷子本嚴島文書 94), 6월 8일 안코쿠지 에케이의 서장(卷子本嚴島文書 95)등 ; 김경태, 「임진전쟁 초기 경상좌도 일본군의 동향과 영천성 전투」, 『군사』 95, 2015, 387쪽에서 재인용.

86) 김경태, 위의 논문, 2015, 387쪽.

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반적 관점이다. 경상우도의 경우 경상도순찰사 김수와 의병장 곽재우, 경상좌도의 경우 경상좌병사 박진과 일부 의병장 등의 갈등과 대립의 사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전라도의 경우 처음에는 관군 장수와 의병 부대와의 관계가 우호적이었다. 하지만 용인 전투 이후 전라도순찰사 이광이 지휘한 관군의 정비와 수습 과정에서 관군 장수와 의병장의 관계가 심각한 대립으로 나타났다. 함경도에서도 순찰사 윤탁연과 의병장 정문부의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다.

임진왜란 개전 초기에 현지 장수나 지방관들의 공백이 있는 지역에서는 전현직 관료나 사족들이 흩어진 군졸들을 수습하여 의병 부대를 결성해 독자적인 군사 행동을 수행하고 있었다.⁸⁷⁾ 이후 권응수와 정문부는 초유사 김성일과 함경도순찰사 윤탁연에 의해 각각 의병대장으로 임명되었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관의 기능이 마비되어 의병의 활동이 그만큼 활발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의병 부대가 준관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더욱이 의병장이나 의병 부대의 주요 구성원이 현직 군관이나 관료였기 때문에 경상좌병사 박진이나 함경도순찰사 윤탁연 등은 이들을 관군으로 간주하여 지휘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는 개전 초기의 패배로 관군이 와해되었을 때, 조정에서 산졸들이 의병 부대에 소속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거나 묵인했던 것에서 기인하였다.⁸⁸⁾ 그러나 군 지휘 체계에서 볼 때, 이는 조정 스스로가 관군을 부정하는 것이며, 관군을 정상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그 군사들이 의병에 가담하는 것을 금단해야 했다.⁸⁹⁾ 실제 관군이 주도적으로 전투를 수행하였을 당시에는 조정에서

87) 김진수, 앞의 논문, 2012, 12~14쪽.

88) 『宣祖實錄』 권32, 25년 11월 1일 丁巳.

89) 하태규, 「임란 호남의병에 대한 연구현황과 과제」, 『역사학연구』 59, 2015, 87~88쪽.

의병들을 국가의 통제권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조치를 단행한다. 즉, 의병에 소속된 인원들을 관군으로 전환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정문부와 권응수, 곽재우, 김면 등을 관직에 제수하면서 의병들을 관군에 소속시켜 관군화하고, 이에 포함되지 않은 대부분의 의병을 해산시키는 조치 등에서 확인된다.⁹⁰⁾ 이러한 조정의 조치에 따라 상대적으로 의병의 역할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5. 맺음말

임진왜란이 발발한 직후 관군은 정상적인 동원 체제를 작동하여 일본군의 침공에 대응했지만, 예상치 못한 대규모 일본군의 압도적인 공세로 초기 전투에서 연이어 패배하였다. 이로 인해 관군 지휘부가 붕괴되고, 국왕 선조가 도성을 떠나 개성-평양-의주로 피난하면서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까지 몰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조선 조정은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북방 지역 관군의 가세를 통한 군사력 보강과 하삼도 근왕군의 출진 등 여러 조치들을 단행했고, 실제로 공세 행동에 들어가기도 했다. 반면, 일본군은 한성을 점령하였음에도 이전보다 진격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했으며, 조선 수군의 활동과 명군의 참전으로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다. 개전 이후 수개월여 만에 육상의 관군이 재편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단기간 내에 재편이 가능했던 것은 조선 왕조가 유지해온 강력한 행정력과 자기 방어의 경험 때문이었다. 즉, 각 도의 일부 관군 장수와 지방관들은 각 군현별로 흩어진 군사들을 수습하고 책임 지역을 수성하면서 일본군에 대해 지속적인 항전을 벌이고 있었다.

90) 김강식, 「임진왜란 의병의 성격 변화-의병의 관군화 문제-」, 『부대사학』 17, 1995 ; 「임진왜란 시기 松巖 金沔 軍의 의병 조직 변화와 경상우도 의병의 변화상」, 『남명학』 18, 2013.

또한 지방관들의 공백이 있는 지역에서는 권응수와 정문부와 같은 현직 무관과 전직 관료, 사족 등의 의병 장이 산졸들을 수습하여 의병을 일으키면서 독자적으로 군사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후 경상도초유사 김성일과 경상도안집사 김륙 등은 흐트러진 군정 체계를 바로잡고 있었고, 전라도순찰사 이광과 경상좌병사 박진 등은 지휘권 복구와 관군 재편을 실시하였다. 그러한 성과로 관군은 조직적인 반격을 감행할 수 있었다. 이는 주요 지역을 수복함과 동시에 일본군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 양상으로 나타났고, 관군이 일본군에 대해 점차 우위를 나타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관군은 의병 부대에 화기 지급과 같은 군사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 전투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관군의 재편과 활동에 의해 의병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개전 이후 2~3개월이 지난 후에는 관군이 전투를 주도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관군의 전투력과 일본군에 대한 자신감이 급속히 회복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과거 1580년대의 니탕개의 난 평정 과정에서 군사 경험을 쌓은 조선의 장수들이 존재했기에 가능했다는 시각이 있다. 즉 임진왜란 당시의 조선은 결코 대규모 전면전이 없는 시기에 안주하면서 ‘崇文賤武’ 사고에 물든 비정상적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다.⁹¹⁾ 그럼에도 전쟁 당시 관군의 실상을 다룬 최근의 연구에서는 여전히 개전 초기 패배의 요인을 군사 제도 및 전술의 허점과 정치적 대립 및 정책의 일관성 부재 등, 관군의 무기력함과 조선 정부의 무능함에서 찾고 있다.⁹²⁾ 그러나 인류 전쟁사에서 강병을 양성한 적의 기습 침공을 정상적인 군사 시스템을 동원하여 1차 방어선에서 제어한 경우가 과연 존재했는가를 고려한다면, 임진왜란의 초기 양상은 전쟁사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91) 민덕기, 「임진왜란에 활약한 조선 장수들의 성장기반에 대하여」, 『전북사학』 50, 2017, 110쪽.

92) 김성우, 앞의 논문, 2013a, 514-529쪽.

수 있다.⁹³⁾ 오히려 불리한 전쟁 상황에도 각 지역의 지방관과 장수들이 이반된 민심을 수습하면서 와해된 군사력을 재편한 동향은 임진왜란 초에 주목해야 할 연구 대상이다. 또한, 전쟁 극복 주역의 하나인 관군의 실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즉 관군의 재편과 반격에 필요한 양성·훈련·보급 등의 실태는 물론, 관군 지휘부의 전략과 관군의 전술, 국지전투의 실상, 일본군과의 전투 양상에 대한 규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1593년 평양성 탈환이후 조선의 군사력이 재정비되는 상황을 살펴보고, 그러한 과정이 정유재란에서 어떠한 성과로 나타났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임진왜란 시기 관군의 활동에 대해서는 이 전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임진왜란 전쟁사에 대한 새롭고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관군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수적이다.

논문투고일 : 2018. 12. 31 심사완료일 : 2019. 01. 25 게재확정일 : 2019. 02. 16

93) 이왕무, 「임진왜란 안동 지역 지방관과 관군의 역할」, 『안동지역의 임진란사 연구 발표문』, 2018, 114쪽.

참고문헌

〈사료〉

『宣祖實錄』, 『宣祖修正實錄』, 『征蠻錄』, 『孤臺日錄』, 『樂齋先生日記』, 『亂中雜錄』, 『寄齋史草』, 『栢巖集』, 『白雲齋實紀』, 『盤谷集』

〈저서〉

- 李魯, 『譯註 龍蛇日記』, 한일문화연구소, 1960.
- 육군본부, 『韓國軍制史-近世朝鮮前期篇-』, 1968.
- 서인한, 『壬辰倭亂史』,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7.
- 許善道, 『朝鮮時代 火藥兵器史研究』, 일조각, 1994.
- 이수건, 『영남학과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995.
- 이장희, 『임진왜란사연구』, 아세아문화사, 1999.
- 안동군자리문화선양사업회, 『군자리 그 문화사적 성격』, 토우, 2001.
- 한국역사연구회 중세2분과 법전연구반, 『각사수교』, 청년사, 2002.
- 전라문화연구원, 『임진왜란 웅치전투와 전적지』, 선명, 2006.
- 申佺, 신해진 역, 『譯註 亂蹟彙撰』, 역락, 2010.
- 육군본부, 『한국군사사 7』, 경인문화사, 2012.
- 신해진 역, 『역주 향병일기』, 역락, 2014.
- 김경태, 『임진전쟁기 강화교섭 연구』,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 전북사학회, 『임진왜란 웅치전투와 이치전투』, 전북사학회·전라북도 완주군, 2017.
-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 『경북지역 임진란사』 1·2·3, 경상북도, 2018.
- 北島萬次, 『朝鮮日々記·高麗日記』, そして, 1982.
- _____, 『豊臣秀吉の朝鮮侵略』, 吉川弘文館, 1995.
- 中野 等, 『秀吉の軍令と大陸侵攻』, 吉川弘文館, 2006.
- _____, 『石田三成伝』, 吉川弘文館, 2017.

〈논문〉

- 김강식, 「壬辰倭亂 義兵의 性格 變化-義兵의 官軍化 問題-, 『부대사학』 17, 1995
- _____, 「임진왜란 시기 松巖 金沔 軍의 의병 조직 변화와 경상우도 의병의 변화상」, 『남명학』 18, 2013.
- 김경태, 「임진전쟁 초기 경상좌도 일본군의 동향과 영천성 전투」, 『軍史』 95, 2015.
- 김경숙, 「임진왜란 초기 지방관의 守土活動」, 『조선시대사학보』 65, 2013.
- 김성우, 「임진왜란 시기 관군은 왜 약했는가?」, 『역사와현실』 27, 2013a.
- _____, 「임진왜란 초기 制勝方略戰法の 작동 방식과 상주 북천전투」, 『한국사연구』 163, 2013b.
- 김종수, 「임진왜란 초기 방어실태와 웅치·이치 전투」, 『전북사학』 51, 2017.
- 김진수, 「임진왜란 초기 경상좌도 조선군의 대응양상에 대한 검토」, 『軍史』 84, 2012.
- _____, 「임진왜란기朴翥의 군사활동과 평가」, 『한국사학보』 60, 2015.
- 김학수, 「김성일(金誠一)의 임란 중 활동과 인적 네트워크」, 『남명학연구』 41, 2014.
- 노영구, 「壬辰倭亂 초기 양상에 대한 기존 인식의 재검토」, 『韓國文化』 31, 2003.
- _____, 「임진왜란 초기 경상우도 의병의 성립과 활동 영역」, 『역사와현실』 64, 2007.
- 류주희, 「임진왜란을 전후한 尹卓然의 활동-〈關北日記〉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문화』 28, 2005.
- 민덕기, 「임진전쟁 초기의 전개상황과 그 배경」, 『전북사학』 39, 2011.
- _____, 「임진왜란에 활약한 조선 장수들의 성장기반에 대하여」, 『전북사학』 50, 2017.
- 박재광, 「임란 초기전투에서 관군의 활동과 권율」, 『임진왜란과 권율장군』, 전쟁기념관, 1999.
- 송정현, 「壬辰倭亂論 : 官軍과 義兵의 역할 문제」, 『전남사학』 8, 1994.
- 신명호, 「임진왜란 중 선조 직계가족의 피난과 항진」, 『軍史』 81, 2011.

- 심승구, 「임진왜란기 군사지휘권의 추이와 성격」, 『임진왜란과 권율장군』, 전 쟁기념관, 1999.
- 李仙喜, 「임진왜란 시기 咸陽 수령의 전란대처-『孤臺日錄』을 중심으로-」, 『진 단학보』 110, 2010.
- _____, 「임진왜란기 경상좌도 지역 청도군수의 임용실태와 전쟁대응」, 『한국 학논총』 49, 2018.
- 이수건, 「월곡 우배선의 임진왜란 의병활동」, 『민족문화논총』 13, 1992.
- 이양희, 「오리 이원익의 임진왜란기 군사활동」, 『한국인물사연구』 4, 2005.
- 이재정, 「別破陣과 조선후기 大砲 운용」, 『한국사론』 64, 2018.
- 이호준, 「임진왜란 초기 경상도 지역 전투와 군사체제」, 『軍史』 77, 2010.
- _____, 「임진왜란 초기 下三道 勤王軍 활동 연구」, 『학예지』 19, 2012.
- 장준호, 「임진왜란시 朴毅長의 경상좌도 방위활동」, 『軍史』 76, 2010.
- 張學根, 「壬辰倭亂기 官軍의 活躍」, 『韓國史論』 22, 1992.
- 정해은, 「임진왜란 초기 경상도 수령의 동향과 의병지원 활동」, 『조선시대사학 보』 70, 2014.
- _____, 「임진왜란 초기 경상좌도 안집사 김륵의 역할과 활동」, 『영남학』 28, 2015.
- _____, 「임진왜란기 대구 수령의 전쟁 대응과 사족의 전쟁체험」, 『역사와경계』 98, 2016.
- 하태규, 「임진왜란 초기 전라도 관군의 동향과 호남방어」, 『한일관계사연구』 26, 2007.
- _____, 「임진왜란 초 호남지방의 실정과 관군의 동원실태」, 『지방사와지방문 화』 16-2, 2013.
- _____, 「임란 호남의병에 대한 연구현황과 과제」, 『역사학연구』 59, 2015.
- 허태규, 「金誠一 招諭 활동의 배경과 경상우도 義兵 봉기의 함의」, 『남명학연 구』 41, 2014.

【ABSTRACT】

Re-recognition of the Reorganization and Character of Regular Royal Army of Joseon in Early Period of Imjin War

Kim, Jin-Soo

While much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he Righteous Militias (義兵) in the study of the Imjin Japanese Invasion of Korea [[for Joseon]] (the Imjin War, 壬辰倭亂) after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colonial occupation into the 1990s, there remained a lack of studies on the regular Royal Army (官軍) of Joseon as a major actor in overcoming the war, which produced a negative view that focused on the weakness of the regular Royal Army during the war and the incompetence of the Joseon government in responding to the war. Yet, in the 2000s, starting from reviews on the previous recognition and the attitude toward the Imjin War, studies with new perspectives on the Royal Army's responses to the war have become more visible. Thes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Even though the Royal Army of Joseon fought against the Japanese invasion by maintaining its normal mobilization system immediately after the outbreak of the Imjin War, the army was defeated consecutively in the ensuing initial battles by the overwhelming offensives of the unexpectedly large Japanese army. This led to the collapse of the regular Royal Army command, and King Sunjo (宣祖) had to leave the palace to seek shelter

in Gaeseong, and then in Pyongyang and Bukju, causing a national crisis. Looking into the response patterns of the regular Royal Army from a macroscopic perspective after the fall of Hanseong (漢城), it ostensibly seems that the regular Royal Army almost collapsed and the Righteous Militia took the lead in the battles against the invading Japanese army. Looking more closely into the situations and the details, however, the Royal Court (朝廷) of Joseon had taken various measures such as strengthening its military forces by adding regular armies in the Northern regions and the Royal Guards in the Southern regions so to take superior control of the war.

On the contrary, even though the Japanese army occupied Hanseong (漢城), its speed of advance began to slow and the activities of Joseon's navy and the participation of the Ming (明) army began to put the Japanese invaders on the defensive. Reorganization of the regular armies in each province was also quickly conducted. Subsequently, regular armies of Joseon regained major regions by launching systematic counterattacks and began to wage an overall offensive against the invading Japanese army. In addition, by actively using gunpowder weapons, the regular armies of Joseon gradually began to overwhelm the Japanese military armed with firelocks (鳥銃). Two to three months after the start of the war, the regular armies of Joseon took control in the battles, which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recognition that the responses of the regular army of Joseon on land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were nearly helpless and, thus, the Righteous Militia (義兵) ultimately had to take control of the battle in place of the regular army.

This means that the military might of the regular army of Joseon and its confidence recovered rapidly. Furthermore, this was possible because the

Joseon dynasty had maintained strong administrative control and acquired experience in self-defense. Therefore, more accurate evaluations of the regular army of Joseon must be conducted based on the overall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of the Imjin War.

【Key words】

Imjin War (壬辰倭亂), King Sunjo (宣祖), Toyotomi Hideyoshi (豊臣秀吉), Regular Army of Joseon (官軍), Righteous Militia (義兵), Remnants of defeated troops (散卒), Gunpowder weapon, War history

